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한국 시장경제의 위기 원인과 대책
[발제자] 김종석 홍익대학교 교수
[일 시] 2020년 10월 8일(목) 오전 10시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48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한국의 시장경제가 위기이다. 그 원인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현 정권의 정책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이 필요하다.

▪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인간의 잘살겠다는 욕망이다. 이런 욕망, 탐욕, 이기심을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제도적 설계는 세 가지이다. 재산권(사유재산)의 보호, 계약의 자유와 계약 이행,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 중 하나만 없어도 불완전한 시장경제가 된다.

▪ 매년 GDP 성장률 등락이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장기추세선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 투입, 자본투입, 생산성이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이다. 이 중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방법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다.

▪ 시장기능과 정부 기능은 비교우위가 다르다. 시장기능과 정부 기능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이다.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 기능을 잘하도록 보완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려 할수록 이익 집단의 발호와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다.

◆ 한국 시장경제의 위기

- ◆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그 원인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현 정권의 반시장적 경제 정책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이 필요하다.
- ◆ 헌법 119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를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임을 천명하는 근거조항으로 보고 있다.
- ◆ 대한민국의 경제적 융성과 오늘이 있게 한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이다. 시장경제는 누가 만든 사람이 없고 시대에 따라 진화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이다. 시장경제는 생산, 분배, 소비의 모든 의사결정이 분산되어 이루어진다. 각자가 자신을 위해 일하고 그것이 생태계를 형성해 가장 좋은 효과를 낸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만, 그것이 의도치 않게 남에게 이롭게 기능한다. 아담 스미스가 시장의 역할을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 ◆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사람들의 이타심이나 혁신 의지가 아니라 이기심, 욕망, 탐욕이다. 이 세 가지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 재산권(사유 재산)의 보호, 계약의 자유와 계약 이행,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있다.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셋 중 하나만 없어도 천민 자본주의가 되고 불완전한 시장경제가 된다. 전세계 100여 개 나라 중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가 절대다수이지만 그 모든 나라가 잘 사는 것은 아니다.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거나 경제활동이 규제되고 있거나 공정하고 자유로

운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독과점과 시장지배력의 남용이 횡행하는 경제가 되면 시장경제, 아담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의 위력이 발생하지 못한다.

- ◆ 지금 한국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문제 중 하나는 현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경제정책에서 사유재산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자유, 원하는 상대방과 만나서 원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의 자유를 훼손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보다 경쟁은 나쁜 것이라 하며 담합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무수히 쏟아내고 있다.
- ◆ 정치인과 관료조직 모두가 사적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 정치인과 관료조직도 하나의 이익집단이다. 정치인은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한다. 정치인이나 관료로 구성된 정부라는 조직이 반드시 공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거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공익을 반드시 공조조직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 분야와 통신 분야에서 민간기업이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공익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처럼 민간조직이 정부의 법과 제도 속에서 공익을 더 증진할 수 있다.

◆ 한국 시장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

- ◆ GDP는 국내 총 생산을 말한다. 국내 총 생산은 생산량을 말하고 그것은 곧 국민소득이다. 나의 소득은 누군가의 지출이다.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GDP가 증가했다. 생산물의 양도 늘어났지만 가치도 늘어나 잘사는 나라가 된 것이다. 더 먹고 싶으면, 더 생산해야 한다. 이것이 당연한 원리이다. 이를 무시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이다.
- ◆ 지금 한국은 양극화의 심화, 실업의 증가, 복지재원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이 다 경제문제인 것 같지만 이 뿌리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다. 한국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빠르게 늘어나면 가계 부채와 국가부채는 줄어들고 실업도 감소한다.
- ◆ 현재 한국의 GDP성장률의 장기추세선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강하고 있다. 노동투입, 자본투입, 생산성 세 가지 변수를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변수로 본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 투입을 늘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본투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기업환경이 나빠서 기업들이 R&D와 같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노동이나 자본투입을 대폭 늘려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없다면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한국 경제를 다시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올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 ◆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리려면 자본스톡을 증가시켜야한다.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확충해야한다. 또한 다양한 고용형태가 가능하도록 노동개혁을 해야 하고 기술개발과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환경을 개선해야한다. 시장을 개방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며 침체되고 고용창출능력이 없는 산업 대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 경제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역할

- ◆ 정부는 경제적 능력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은 비교우위가 다르다.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은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이다.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 기능을 잘 하도록 보완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정부도 보다 적은 인력과 적은 세금으로 공익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정부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국가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려 할수록 이익 집단의 발호와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이다.
- ◆ 정부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했다. 국가가 국민을 책임진다면 국민은 국가의 노예가 된다. 북한과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랬다. 국민이 국가를 책임지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이다.
- ◆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시장친화적 개혁’을 해야한다.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개혁과 국가전략이 중요하다.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고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며 고용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부실기업은 구조 조정을 하고 내수 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 ◆ 국가 전략과 국가 의사결정 능력 개선을 위해서는 집단이기주의와 영합주의를 극복하고 생산적 활동이 보상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극대화되는 경제를 추구해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